갈 곳 없는 돈, 결국 은행으로
'1%' 울며 겨자먹는 예금자들

5명 중 1명 가입 … 1%대 정기예금 비율 사상 최대

지난 25일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은행 창구를 찾았던 회사원 천모씨는 재예치 금리를 물어보곤 화들짝 놀랐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돈 3000만원을 연 2.6% 금리로 맡겼는데, 지금은 1.9%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은행원 설명 때문이었다. 하지만 천씨는 "1.9% 금리도 조만간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정기예금에 재가입했다.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속에 연 1%대 금리를 받는 정기예금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갈 곳 없는 돈이 은행으로 몰렸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예치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에서 신규로 가입한 정기예금 중 22.6%(금액 기준)가 1%대 금리를 받았다. 5명 중 1명 이상은 1%대 금리를 감수하고 정기예금에 돈을 맡긴다는 것이다. 나머지 77.4%는 2%대 금리를 받았다. 연 3%대 이상의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9%를 기록했다. 1년 전(2.65%)보다 0.56%포인트, 한 달 전보다 0.0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를 1%대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국민은행(수퍼), 신한은행(S드림)은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를 1.9%로 내렸다. 지방 은행과 외국계 은행은 이미 지난해 정기예금 금리를 1%대로 내렸다. 한국씨티은행(프리스타일)은 1.6%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예금을 끌어와 봐야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높은 금리를 줄 필요가 없다"며 "그래도 갈 곳 없는 돈이 은행 예금으로 모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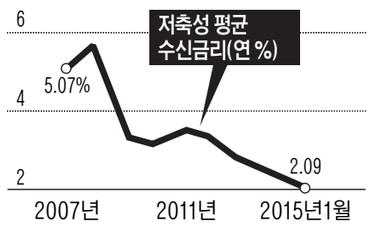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도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상호저축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69%, 신용협동조합은 2.65%로 전월보다 각각 0.07%포인트, 0.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월 초만 해도 1년 정기예금에 연 3%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있었지만, 저축은행에서도 3% 금리는 씨가 말랐다.

한편 저금리 지속으로 예·적금 이율이 2% 안팎에 머물면서 전문가들은 펀드나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이에 따라 금과 같은 현물투자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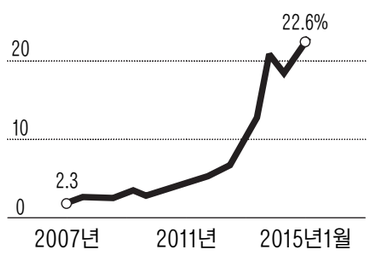
투자회사 한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지수와 연계된 ELS 상품이나 해외주식형 펀드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여기에 연금저축 펀드나 개인퇴직계좌(IRP)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수형 ELS 상품은 금리가 5% 중반이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40% 이상 빠지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리스크가 적다는 설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추락하는 은행의 수신금리



■ 금리 1%대 정기예금의 비율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속에 연 1%대 금리를 받는 정기예금의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갈 곳 없는 돈이 은행으로 몰렸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예치하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답으로 본 2%대 주택대출

아파트·주택 해당… 오피스텔·고시원 제외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내놓은 가계대출구조개선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0% 이상인 변동금리·거치식 대출행태를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는 분할상환 구조로 바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대출의 주체가 다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한다. 대출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고, 금리변동폭이 큰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형태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대출 전환 대상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다. 신규로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주택은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이 애매하다.

▲현행 100%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라도 순수 고정금리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라면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의 기준은 5년이다.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 등이 고정금리대출이다.

-정부 말을 듣고 고정금리 상품에 가입했는데 대상이 안된다니 억울하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기존에 더 높은 고정금리로 받은 고객들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빌렸다. 작년말에 한번 연체한 적이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안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시시기는.

▲3월 24일 예정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연합뉴스

3월 증시 전망

중국발 훈풍… 코스피 2000선 회복 가능성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상무

1950선에 출발한 2월 증시는 1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1985포인트로 2월을 마감했다. 당초 1980선 벽에 부딪힐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글로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안이 4개월 연장 합의됨으로써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가 희석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휴전합의로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가 완화되었다. 또한 ECB의 양적완화정책이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 기대감이 부활하였고, 국제유가 바닥통과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KOSPI 2000선 회복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3월은 2천선 안착 여부를 테스트 받을 것이다. KOSPI 강력 매수는 시기상조일 수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트레이딩 바이(Trading Buy)의 기회는 열려있다고 본다.

첫째, 글로벌 유동성 기대가 부활했다. 3월부터 월간 600억 유로 규모의 ECB양적완화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2016년 9월까지 총 1조 1400억 유로가 시장에 공급된다. 유로존내 신용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이 직접적 목적이라면, 간접적으로는 확장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아울러, 중국의 3월 초 양회를 전후한 기준금리 및 지준율 추가 인하 기대감은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한국 증시가 유가 변동성에 둔감해지고 있다. 현재 임계치 수준까지 하락한 유가 레벨에서는, 쇼크수준의 급등락이 아니라면 향후 유가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저유가 환경은 시차를 두고 선진국 소비경기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원자재 수입, 공산품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도 경기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시장의 유가 컨센서스는 2분기까지 완만한 상승 내지는 정체흐름이 반복되다, 3분기 이후 방향전환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수요 개선의 징후가 불투명하고, 비(非)OPEC 산유국의 감산전환이 미미하며, OPEC의 시장 통제력이 과거와 달리 크게 약화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국제유가의 연내 상승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셋째, 한국증시의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간 한국증시 소외현상은 정책 기대감의 실종과 함께 실적 리스크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임시국회 경제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정책효과의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4분기 실적 시즌 선방에 이어, 보다 나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이다. 실적 바닥통과 가능성이 환기되고 있는 것인데, 실적 변수의 안정화는 시장 상승을 위한 제 1의 선결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글로벌 핵심 대형주 저가매수에 주력하고, 신용버블 영향으로 급등한 중소형주에 대한 경계의 시각을 유지한다. 외국인 매수 유입과 함께 글로벌 핵심 수출주인 IT, 자동차 및 낙폭과대 업종이자 글로벌 유동성 환경과 국내 정책변화 수혜가 기대되는 은행, 증권, 유통 등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 중소형주는 긍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와 주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밸류체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000 포인트 초반까지 하락했던 중국 본토증시는 3310포인트로 마감함으로써 낙폭의 상당부분을 만회했다. 지난해 11월 후강통 실시 이후 보여준 강력한 상승랠리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중국 증시의 기간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0%에 달했던 상해지수의 단기랠리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증시 반등에 필요한 모멘텀은 추가적인 정책모멘텀과 투자지표 회복, 기업이익 하향조정 마무리가 될 것이며 3월 전인대 전후를 유력한 반등 시점으로 예상한다. 아직 중국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늦지 않았으니, 자산배분의 일환으로 중국자산 편입을 적극 제안한다.

SAMSUNG 삼성증권